

인문학 연구소 소식

2025년 여름

Institute of Humanities Newsletter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5년 6월

전 화 051-510-1669

발행인 이호석

편집인 서민정

디자인/제작 만수출판사

전 화 051-513-4042

2025년
여름호

Contents

01 | 여는 말

02 | 연구소 활동

03 | 논문 소개

01 | 여는 말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재난, 급변하는 기술이 일상의 감각을 바꾸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의와 그에 못지않게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또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역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른 지식의 위계 변동 등은 단지 사회 현상이 아니라, 인문학 자체의 존재론을 다시 묻게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인문학의 사회적 의미와 학문적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문도시 창원” 과제 수행을 통한 지역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 “세계문학팀”의 학술활동, 그리고 연구소 학술지인 『코기토』 발간 등을 수행하며 인문학의 자리와 역할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진해 군항제에 참여한 우리 연구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도시가 그 자체로 텍스트이다”라는 미셸 드 세르토(M. de Certeau)의 말처럼, 우리는 진해라는 공간을 역사적 장소, 인물, 기억의 층위로 독해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진해라는 공간에 내재한 인문학적 층위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경험으로 환원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장 속 인문학’의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영상창작 프로그램인 「서터 1기」는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이를 영상이라는 매체로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유를 시각화하는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영상 교육을 넘어, 청년

인문학 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한 시도였습니다. 또한 ‘골목 인문학’ 프로그램은 독립서점을 거점으로 하여 예술·문학·토론을 아우르는 연속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의 공간 속에서 시민과 인문학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인문학의 생활화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3일에는 연구소 세계문학팀이 “세계문학과 언어들의 환대”를 주제로, 부산대학교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에서 교내외 연구자들과 함께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6월 28일에는 오키나와 국제대학교에서 “세계문학,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과 오키나와 국제대·류큐대 연구자들, 그리고 『달은, 아니다』의 작가 사키야마 다미 선생이 함께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차례의 학술 행사는, 세계문학을 둘러싼 언어의 경계와 환대, 그리고 동아시아 문학장의 상호 교차와 재구성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30일에는 연구소 학술지 『코기토』 제106호를 발행하며, 2025년 상반기 연구소의 학술 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인문학은 때로 느리고 현실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공동체를 작동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유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이 인문학의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연구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사유의 중심에 계십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성찰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서민정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부소장



02 | 연구소 활동

동네 책방에서 만나는 골목 인문학

- 4월 11일 (금) 오전 10:30**
오페라 갈라 콘서트 해설
장소: 청보리책방 (영산구 대원동) | 문의: 0507-1336-7919
강연자: 김재관 지휘자
- 4월 21일 (일) 오전 10:30**
자연관찰 드로잉
장소: 청보리책방 (영산구 대원동) | 문의: 0507-1336-7919
강연자: 김효경 작가
- 4월 23일 (수) 오후 7:00**
데미안 프로젝트
장소: 텍스트북 (영산구 용호동) | 문의: 인스타그램 @text_hipbooks
강연자: 정아을 작가
- 4월 26일 (토) 오후 5:00**
책 고르는 책
장소: 카페 안온 (영산구 도재동) | 문의: 0507-1332-8932
강연자: 손민규 작가
- 5월 21일 (수) 오후 7:00**
100년을 잇는 아동문학 이야기
장소: 여느날산책 (진례리대포동) | 문의: 010-7932-5182
강연자: 박중순 아동문학평론가
- 5월 31일 (목) 오후 3:00**
독서의 비밀레시피, 토론
장소: 여느날산책 (진례리대포동) | 문의: 위의 강연과 동일
강연자: 김배경 전문배움연구소장

1. 인문도시지원사업, 동네책방에서 만나는 골목 인문학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동네책방에서 만나는 골목 인문학' 프로그램은 4월~5월 두 달에 걸쳐 창원 지역의 독립서점에서 릴레이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동네책방은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인문학을 가깝게 접하고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훌륭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동네 책방에서 만나는 골목 인문학'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채로운 인문학적 시도를 기획하여 지역주민들의 인문학적 시야를 넓히고, 인문학을 어렵고 멀리 있는 학문이 아닌, 삶과 밀접한 문화로 인식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인문도시사업단, 창원 영상 서포터즈 '셔터' 1기 수료식 열어

5월 17일 창원시 스펀지파크에서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인문도시창원 영상 서포터즈 '셔터' 1기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창원 영상 서포터즈 '셔터'는 창원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청년 서포터즈로, 교육과 팀 활동으로 이루어진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4월 5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창원을 배경으로 한 자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미션을 수행하였는데, 각 팀은 다른 시선으로 '마산 인문학 여행', '마산 어시장의 삶', '창동, 그 자리 사람들'을 발표하였다. '셔터' 프로그램은 지역예술의 발전과 인문학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영상 창작활동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장비 지원과 실무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입시생, 입문자, 전공자가 한 팀을 이루어 공통 관심사를 나누는 교류의 장은 물론 영상 분야 진로를 꿈꾸는 참가자에게 실무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였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초청특강

한강 노벨문학상과 한국문학의 번역

일시: 2025. 5. 29 (목) 오후 4~6시
장소: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

김승복
(일본 쿠온 출판사 대표)

-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
- 니혼대학교 예술학부 명예평론 전공
- 쿠온 출판사 설립
- 한강 <채식주의자>, <사람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외 다수의 한국문학 작품 일본어 번역

주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세계문화과 특색스쿨(410) 연구팀
후원: 한국연구재단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Tel. (051) 510-1669
E-mail: pnuhuman@pusan.ac.kr
E-mail: humanities89@pusan.ac.kr (세계문화팀)

3. 인문학연구소 초청특강: 한강 노벨상과 한국문학의 번역

지난 5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쿠온(CUON) 출판사를 운영하는 김승복 대표를 모시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일본 출판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김대표는 노벨문학상 수상 후 기노쿠니야 서점 등 주요 서점의 진열 변화와 NHK의 집중 보도, 그리고 10-11월 주문 폭증 현상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한국문학 번역서 출간이 증가한 것은 한강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의 맨부커상, 『아몬드』의 일본 서점대상 수상 등 이전부터 축적된 성과의 결실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문학기 인사들의 관심 증대와 쿠온 출판사의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도 한국문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한 부산, 다른 세계, 학구 간의 언어

세계문학과 언어들의 환대

일시: 6월 13일 (금) 오후 1시 - 6시
장소: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사

13:40-14:40 근대 문어 중심주의의 한계와 구어의 가능성: 단일언어주의를 넘어서
서민정 (부산대) 토론: 정대식 (부산대)

14:40-15:40 '광주-오월문학'이 '쟁점으로' 수행하는 세계문학
고명철 (광운대) 토론: 김경연 (부산대)

15:40-16:00 휴식

16:00-17:00 톨스토이와 식민지 조선 - <부활>의 번역을 다시 생각하다
손성준 (성균관대) 토론: 고지혜 (신라대)

17:00-18:00 프레드릭 제임슨의 세계문학론: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제3세계문학」을 둘러싼 논쟁들
김용규 (부산대)

주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세계문학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Tel. 051 510-1689
후원: 한국연구재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E-mail: pnuhuman@pnu.ac.kr

4. 인문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세계문학과 언어들의 환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는 <세계문학과 언어들의 환대>를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 서구 중심적 세계문학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들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민정 교수는 근대 문어의 한계와 단일언어주의를 비판하며 구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고명철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오월문학'이 구현하는 '또-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손성준 교수는 식민지 조선에서 톨스토이 『부활』의 수용을 권력 비판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으며, 김용규 교수는 제임슨의 제3세계문학론과 그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세계문학론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세계문학이라는 큰 담론뿐만 아니라 '언어'를 세계문학 속에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다.

5. 인문학연구소 해외학술 심포지엄 : 세계문학,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세계문학팀이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하여 <세계문학,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효석 소장은 세계문학과 트랜스글로시아 연구팀의 3년간 연구 성과를 종합 검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김경연 교수는 한국의 세계문학 연구의 과정과 현황을 분석하고 젠더 관점의 새로운 세계문학 패러다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류큐대학교 오세종 교수는 오키나와 방언(시마코토바)으로 쓰인 사키야마 다미의 「우민츠 부기」를 통해 지역 언어의 문학적 가능성을 조명하였는데, 사키야마 다미 작가가 심포지움에 직접 참석하여 작품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오키나와 국제대학교 무라카미 요코 교수는 오에 겐자부로 「익사」를 오키나와 집단자살을 둘러싼 재판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였다. 오키나와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오키나와 문학이 다루는 주제와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발표로 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인 동시에 오키나와 연구자들과 학술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



6. 인문학연구소 학술지 『코기토』 106호 발행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학술지 『코기토』(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06호가 2025년 6월 30일에 발행되었다. 『코기토』 106호의 기획논문 주제는 '근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외재적 시선과 내재적 대응'으로 모두 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코기토 Cogito 106
2025.6
The Journal of PNU Humanities Institute

기획논문 근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외재적 시선과 내재적 대응

이성민 1910-1920년대 개신교 선교서의 한국 문학유산 담론 연구
: The Korea Magazine, The Treasure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 기록된 한국 문학유산의 근대

서민정 20세기 전반기 日語(日語)에서 국어(國語)로 되는 과정과 그 영향: 언어 연구 태도와 문법 체계를 중심으로

논문

정선희 권태와 박재의 이원적 공존: 고한승의 문학 창작 방법을 중심으로

장재환 최남선 창작 시조 형식에 대한 연속적 고찰: 『소년』, 『정음』, 『백범만년』 시조의 분절 양상을 중심으로

김시흥 신화를 통한 자기 서사 쓰기: 율포드 루아-올레의 자서전 재구성

연원수 경제적 변형에서 생명의 기원을 사용하다
: 『남아를 태평양전쟁지대(태평양)와 히로시마에-지(지)의 삶』 사제를 중심으로

박상욱 공공역사(public history)에서 노무는 기억의 변화
: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제주(濟州)에 대한 독일민족학(DNA)의 기억을 중심으로

김영환 · 이은지 · 이은진 한국 학술지에 나타난 인문학 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1990-2024)
: 시기별 키워드 및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NU HUMANITIES INSTITUTE
책의 끝은 수평의 끝

03 | 논문 소개

논문 제목 :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학자들의 중국 고고 조사와 그 영향

저 자 : 이현우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게재지 : 『동북아역사논총』 제84호

게재일 : 2024년 6월 30일

2021년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고고연구소(考古學研究所)는 『중국고고학백년사(中國考古學百年史)(1921-2021)』를 발간하여 중국 고고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였다. 총 3권 12책으로 구성되며, 276인의 고고학자가 집필에 참여한 중국 최대 규모의 고고학 총서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원이 대규모 출판 사업을 통해 기념한 중국 고고학의 시작은 1921년으로, 요한 군나르 안데르손(Johan Gunnar Andersson)이 하남성(河南省) 민지현(澠池縣) 앙소(仰韶)유적을 발굴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실제로 서구 학자들은 19세기 중엽부터 이미 중국 신장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의 실크로드 탐사에 뛰어들었으며,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중국 내지로 들어와 조사 및 채집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들 중에는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고, 모두가 전문적인 고고학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조사 결과를 답사기, 단행본, 간보(簡報) 등의 형식으로 출판하였으며, 조사 당시의 도면과 사진을 상세히 남기기도 하였다. 이들의 조사 활동은 어느 정도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물은 보고서로서의 역할과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조사는 ① 극히 개인적인 활동에 국한되었으며 ② 채집, 조사된 유물은 자국으로 반출되었고 ③ 답사기, 단행본, 간보 모두 자국에서 출판되었다. 즉, 당시 서구 학자들의 조사 활동은 학자 개인과 개인이 속한 국가만 존재했을 뿐이며, 그들의 활동에서 중국과 중국인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20년대를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안데르손의 앙소촌, 사과둔(沙鍋屯), 청해(青海)·감숙(甘肅)지역 발굴 조사였다. 이때부터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발굴과 기록 방법이 중국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중국 학자와 조수들이 발굴 현장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리지(李濟)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과학고고 연구학파가 중국고고학의 주류가 되었지만 그 근간에는 안데르손의 발굴 조사와, 그의 동료 혹은 그에게서 지도를 받은 조수들이 있었다. 또한 발굴 이후의 유물 실측, 유적 분포도와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의 작성, 유형학적 분석 역시 안데르손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 시기 중국고고학의 핵심 주제는 중국문화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안데르손은 채도(彩陶)를 특징으로 하는 앙소문화를 제창하였으며, 채도가 근동(近東)에서 기원하여 동쪽으로 전파되었다는 “채도서래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곧 “중국문명서방기원설”로 이어졌고,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절대적인 긍정 혹은 절대적인 부정 없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1930년대에 흑도(黑陶)를 지표로 하는 용산문화(龍山文化)가 정립되었고, “앙소 용산 동서이원대립설”이 제기되었으나 안데르손의 서방기원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안데르손은 고고문화의 정립, 야외고고학 방법론, 유형학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 고고학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동조한 인물로 비판받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발굴 및 연구 성과는 학술적으로 재평가되었고, 지금은 중국 현대 고고학의 서막을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